

2026년 누리과정 포털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우리 가족 놀이 실천 사례 공모전

제목: 아이랑 함께 그리는 '우리 동네 놀이지도' 행복한 일상의 발견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여름 방학이 다가오는데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하지?”

“이번 주말에는 또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매번 돌아오는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대한민국 모든 부모가 하는 익숙된 고민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얼마 전까지는 그랬다. 방학에는 무언가 거창하고 특별한 체험학습을 떠나거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만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았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키즈카페를 검색하거나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를 찾아다니느라 스마트폰 화면을 뒤적거리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곤 했다. 무언가 특별한 곳에 데려가야만 아이들에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강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 속 사진첩을 넘겨보게 되었다. 화면 가득 채워진 사진 속에는 멀리 떠났던 세련된 여행지보다, 우리 동네 곳곳에서 땀방울을 흘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일상

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고, 그만큼 동네 구석구석에는 우리 가족만의 소중한 발자국과 추억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문득 이 소중한 추억들을 그냥 흘려보내기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름하여, **'우리 동네 놀이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우선 하얀 전지 위에 우리 동네 지도의 큰 틀을 그렸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하여 동네의 밑그림을 재미있게 구성하고, 그 위에 아이들이 직접 색칠을 해나갔다. 그리고 매일 함께 오가던 장소, 자주 가는 놀이터와 공원들을 하나씩 스티커로 표시하기 시작했다. "엄마, 여기 기억나요? 그때 우리 여기서 달리기 시합 했잖아!", "아빠, 난 여기가 제일 좋아!" 지도를 채워가는 과정은 단순히 위치를 기록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도란도란 마주 앉아 지난 추억들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이었고, 가장 재미있었던 기억을 그림으로 그려 넣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또 하나의 놀이였다. 지도의 빈칸이 채워질수록,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도 행복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갔다.

우리 가족의 놀이지도에서 가장 커다란 별점이 붙은 곳은 단연 중앙공원의 '뽀족놀이터'이다. 높다란 놀이시설을 다람쥐처럼 오르내리고, 아찔한 미끄럼틀을 타며 아이들은 몇 시간이고 땀을 흘리며 뛰어논다. 처음 이 놀이터에 왔을 때는 무섭다며 엄마, 아빠의 손을 꼭 쥐고 엉금엉금 기어가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 멀리서부터 혼자 달려가 거침없이 시설을 정복하고는 "엄마! 나 혼자 성공했어!"라며 손을 흔들며 외친다. 그 외침 속에서 아이의 부쩍 자란 용기와 성장을 느낀다.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유희의 공간을 넘어,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감을 배우는 거대한 배움터였던 셈이다.

집 앞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들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거점이다. 멀리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그곳에만 가면 자연스럽게 동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약속하지 않아도 모여든 아이들은 금세 편을 나누어 숨바꼭질을 하고 술래잡기를 하며 마음껏 뛰어논다. 아이들의 놀이 본능은 경계가 없다. 우리 아이들은 옆 단지 아파트 놀이터로 원정을 떠나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단지마다 놀이터의 테마와 기구가 다르고 특징이 달라서, 아이들에게는 같은 동네 안에서의 '놀이터 투어'조차 새로운 탐험이자 흥미진진한 모험이 되어 주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운동화 끈을 매고 밤산책을 나선다. 낮 동안의 뜨거웠던 열기가 가라앉고 선선한 밤공기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의 일과를 공유하게 된다.

"엄마, 유치원에서 숲놀이 갈 때 매일 이 길로 걸어요."

"아빠, 여기 유치원 친구들이랑 다 같이 와봤던 곳이다!"

평소 집 안에서는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아이들의 소소한 유치원 생활과 속마음들이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별빛을 받으며 천천히 걷는 이 시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이 서로의 목소리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가장 소중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넓은 광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해방구가 된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킥보드와 자전거를 타며 마음껏 속도감을 즐긴다. 그러다가도 화단에 피어난 자그마한 길가 꽃을 발견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멈춰 서고, 바닥에 엎드려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들의 행렬을 관찰하며 자연과 친구가 된다. 특히 여름 밤, 시원한 음악분수가 광장을 채우면 아이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한다. 옷이 흠뻑 젖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물줄기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광장이 떠나가라 웃어댄다. 그 순수한 웃음소리가 광장 가득 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싼 장난감이나 화려한 테마파크보다 더 값진 놀이가 바로 부모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 나성 꽃밭에 알록달록 꽃이 만발할 때면, 아이들은 마치 초록빛 미로를 통과하듯 각기 다른 꽃길로 접어들어 숨바꼭질을 하며 동화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주말이면 발걸음이 향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은 우리 가족의 정적인 놀이터다. 아이들은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오고, 엄마 아빠의 무릎에 기대어 함께 그림책의 책장을 넘긴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궁금했던 자연의 비밀을 책 속에서 직접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 폭 빠져 있는 관심 분야의 책을 한 가득 빌려오기도 한다.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 동네 놀이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독서 경험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더욱 풍성하게 키워주는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주고 있다. 또한, 흥미진진한 전시와 체험이 가득한 어린이박물관은 아이들에게 매년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꿈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온 날이면, 거실은 이내 아이들의 유쾌한 역할놀이 무대로 변하고 세상에 대한 질문도 한층 깊어지곤 한다.

유치원 앞 아이돌공원 역시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우리에게 자연의 신비를 선물한다. 특히 유치원 마당의 작은 텃밭과 텃논에서 씨앗을 뿌리고, 벼가 자라며 생명이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하기만 하다. 책 교과서 속 글자가 아니라, 흙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것. 특별한 교재보다 자연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동네 품 안에서 매일 몸소 배우고 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하나둘 표시해 나간 장소들이 어느새 커다란 전지 위의 놀이지도를 빈틈없이 가득 채웠다. 이제 아이들은 동네를 걷다가 새로운 꽃나무나 재미있는 징검다리를 발견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외친다. “엄마! 여기 진짜 재밌다! 집에 가서 우리 지도에 꼭 채워 놓자!”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지도는 이제 단순한 ‘지형 정보’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보여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따뜻한 ‘가족 성장 일기’이자 ‘행복의 이정표’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번 주엔 또 어디를 가야 아이가 심심해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감 섞인 고민을 먼저 했다면, 지금은 ‘오늘은 우리 동네의 어떤 골목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볼까?’ 하는 설렘을 먼저 갖게 된다. 동네라는 친숙한 공간에서 머물며 놀다 보니, 아이들은 주어지는 놀이 대신 스스로 놀이를 창조하고 주도해 나가는 힘을 길렀다. 부모인 우리 역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고, 천천히 걷고, 사소한 대화에도 깊이 공감하는 귀한 시간을 선물 받았다. 우리 가족의 관계는 이 지도를 그리기 전보다 훨씬 끈끈하고 풍성해졌다.

우리 가족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았다.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길모퉁이, 익숙한 공원의 벤치, 도서관의 책 냄새, 광장의 시원한 분수와 활짝 핀 꽃밭이 모두 아이들의 훌륭한 배움터이자 소중한 추억의 저장소였다.

아름다운 자연과 안전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룬 세종이라는 따뜻한 품 안에서 아이들의 유아 시절을 함께 보내고, 이 소중한 일상을 동네 자원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로서 참으로 큰 축복이자 행복이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동네 놀이 지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질 것이다. 새로운 거창한 장소가 생겨서가 아니다. 비록 매일 마주하는 같은 공간일지라도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키가 자라나며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매일매일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아이, 그리고 우리 동네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 그

아름다운 변화는 우리 손으로 직접 그린 '우리 동네 놀이지도' 한 장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행복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별점 주는 둘째(7세)



별점표 그리는 첫째(8세)

		① 중앙공원 벚꽃놀이터.♡	② 아파트단지 놀이터.♡	③ 저택밤산책 코스.♡	④ 광장에 서키퍼트·자전거 타기.♡	⑤ 음악분 수.♡
엄마		★★★★★	★★★★★	★★★★★	★★★★★	★★★★★
아빠		★★★★★	★★★★★	★★★★★	★★★★★	★★★★★
세린		★★★★★	★★★★★	★★★★★	★★★★★	★★★★★
재희		★★★★★	★★★★★	★★★★★	★★★★★	★★★★★
		⑥ 어린이공원 하키♡♡♡	⑦ 어린이공원 관 13 6	⑧ 도서관	⑨ 어린이공 원 11 5	⑩ 나성꽃밭
엄마		★★★★★	★★★★★	★★★★★	★★★★★	★★★★★
아빠		★★★★★	★★★★★	★★★★★	★★★★★	★★★★★
세린		★★★★★	★★★★★	★★★★★	★★★★★	★★★★★
재희		★★★★★	★★★★★	★★★★★	★★★★★	★★★★★

우리 가족이 완성한 우리 동네 놀이터 별점표
공동1등: 1번, 3번/ 2등: 8번 / 3등: 4번